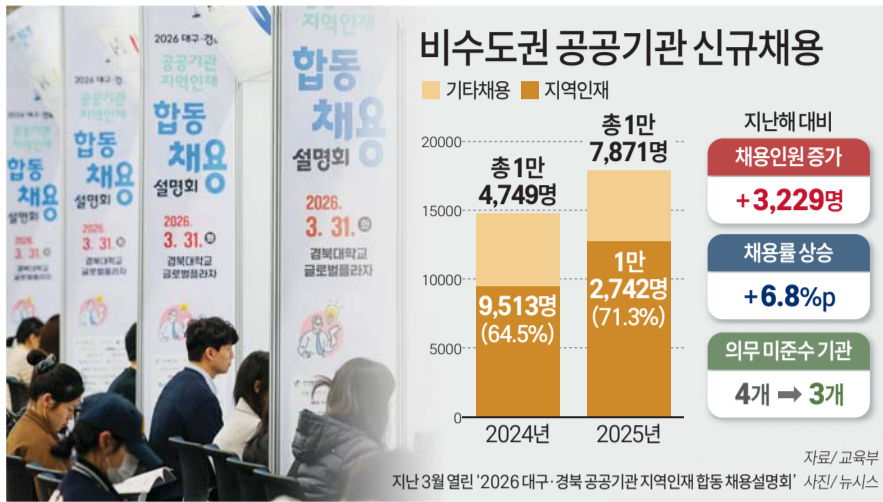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채용자 10명 중 7명은 '지역인재'

교육부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현황' 신규채용 규모 총 1만7871명 중 지역균형인재 1만2742명... 71.3% 의무 선발 기준 준수 이행률 98.3% 미준수 기관, 지역인재 풀 부족 사유



지난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채용자 10명 중 7명은 지역균형인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5%의 두 배 수준이다. 다만,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이 많은 일부 기관에서는 전문 인력 풀 부족으로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8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18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인재가 선호하는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8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교육부가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2025년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총 1만787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된 인원은 1만2742명으로, 평균 채용률은 71.3%였다. 이는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비율인 35%보다 36.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해도 채용 규모와 지역인재 채용률 모두 증가했다. 2024년에는 182개 기관에서 신규채용 1만4749명 중 9513명

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평균 채용률 64.5%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조사 대상 기관이 184개로 늘었고, 신규채용 규모는 3122명 증가했다.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3229명 늘었으며, 평균 채용률은 6.8%포인트 상승했다.

의무 이행률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184개 기관 중 181개 기관이 의무 선발 기준을 준수해 이행률은 98.3%였다. 미준수 기관은 2024년 4곳에서 2025년 3곳으로

줄었다.

2024년 미준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었다. 2025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의무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준수 기관들은 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 중심의 채용 구조와 전문 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풀 부족을 사유로 들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분야 연구기관 특성상 대부분의 채용 인력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공학인력이며, 전문역량을 보유한 지방대학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기술원은 현행 기준상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비율 달성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 중심의 채용 구조상 전문 역량을 겸비한 지역인재 풀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전체 채용인원 6명 중 5명이 연구직 박사학위 소지자로 의무채용 예외에 해당하고, 나머지 채용인

원이 1명이 그쳐 비율 달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역균형인재는 지방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지방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뜻한다. 고졸자는 제외되며, 지방대학원 졸업자는 포함된다.

다만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박사학위 요건 제한 채용, 경력 제한 채용, 기관장이 정한 합격 기준 미달, 지원자 중 지역인재 비율이 35%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다만 전문 연구인력 채용 등 일부 현장의 어려움도 있는 만큼 기관별 채용 여건을 살피며 제도가 지역인재의 성장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초·중·고생, 150개 부스서 진로체험

내달 14일~17일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오는 22일 9시부터 사전접수 시작 1대1 맞춤형 진로상담·특강 등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박람회 사전 접수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서울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청소년이며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1회차 오전 9시20분~11시20분, 2회차 낮 12시30분~오후 2시30분, 3회차 오후 3시~5시 중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가족 단위 신청은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올해로 23주년을 맞은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는 약 4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콘서트, 진로특강, 진로전시 등으로 운영된다.

진로상담 영역에서는 1대1 맞춤형 진로 검사 상담을 비롯해 고입 상담, 대학 진학 상담, 학부모 상담, 고교학점제 상담, 특수학생·학부모 진로 상담 등이 진행된다.

진로체험 영역에서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기관, 우수기업, 대학 등이 참여해 7개 분야 150개 부스를 운영한다. 분야는 디지털·데이터, 첨단공학, 콘텐츠, 예술·의식주, 생명공학·환경, 공공안전·돌봄·치유, 창업·금융·마케팅 등이다.

진로콘서트는 개막식과 함께 학생동아리 7팀 공연, 진로멘토 12팀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진로특강도 마련된다. 7월 14일 오후 3시30분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을 주제로 강연하고, 15일 오후 3시30분에는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를 쓴 이나준 작가 겸 의사·유튜버가 '어쩌다 보니 직업이 세 개'를 주제로 특강한다.

진로전시 영역에서는 박람회 공모전 입상작인 포스터, 슬로건, 캐릭터 이모티콘, 동영상 등 총 73점이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민자도로 중 가장 우수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경기도가 운영중인 민자도로 3개(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노선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밝혔다.

민자도로 운영평가는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 시설물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시설물·도로 포장·교통·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체계적인 포장관리와 터널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한 주행 안전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도로 환경을 개선한 점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경. /경기도

전문가들은 민자도로 3개 노선 모두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전기차회차 발생 대응과 노후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평가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서울 전통시장·골목상권 120곳서 최대 33% 환급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가계보탬페이백 주간'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120곳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3%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페이백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서울 시내 전통시장·골목상권 120곳에서 '2026 서울시 가계보탬페이백 주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방문객 증가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남구 역삼동골목형상점가,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 구로구 구로시장,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종로구 통인시장, 양천구 신월3동시장골목형상점가 등 25개 자치구 120곳이 참여한다.

시민들은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온누리 상품권. /뉴스시스

지정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카드와 현금 등 결제 수단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해당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3만원이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1만5000원 이상 3만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만원 이상 6만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원 이상 9만

원 미만 구매 시 2만원, 9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품목은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환급은 디지털온누리앱 내 '선물'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시장별로 다르며, 환급 장소에서 실시간 발송하거나 행사 시간 종료 후 일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산 조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페이백 행사와 함께 시장별 자체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파주·양주 축제 등 경기도로 놀러오세요"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운영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7일부터~20일까지 서울시청 인근 '지역관광안테나숍'에서 열리는 '로컬트립 맛있다' 팝업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2026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을 10회 이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홍보관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축제와 행사 현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파주 문화사계 가을 축제(9월 18~20일)', 양주 천일홍 축제(10월 2~4일)', 제주 107회 전국체육대회(10월 16~22일)'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운영 일정과 장소는 경기관광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홍보관은 기존 차량 중심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머물며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형 홍보관으로 개편됐다. 'DMZ 평화'를 주제로 캠핑 분위기를 집복한 피크닉 라운지를 조성하고, 현장에서는 ▲DMZ 컬러링월드 ▲DMZ 슈팅 챌린지 ▲DMZ 캡슐 뽑기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경기도 관광자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3일부터~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는 특별 팝업스토어 '경기 여행 고민 자판기'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관람객의 성향에 맞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이색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기관광공사의 주요 관광사업을 보다 흥미롭게 알릴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방문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머물며 경기도 관광의 매력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